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Ways to Revitalize Bibliotherapy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Based on User Perception and Need

김 경 숙 (Kyung-Sook Kim)*

송 정 숙 (Jung-Sook Song)**

목 차

1. 서 론	3.3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4.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1 서비스
2. 연구의 설계	4.2 비용
2.1 설문지의 개발 및 구성	4.3 환경과 공간
2.2 조사 대상의 선정과 조사 방법	4.4 홍보
3. 연구의 분석 결과	4.5 사서와 이용자
3.1 독서치료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4.6 적시성
3.2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5. 결 론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 6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과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비용, 환경과 공간, 홍보, 사서와 이용자, 적시성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user perception and need of bibliotherapy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questionnaire that asked 648 public library users in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do to give their opinions on bibliotherapy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along with the particular areas of the service with which they thought needed the most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in order to suggest ways to revitalize bibliotherapy services provided in public libraries.

키워드: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독서치료 서비스, 정신건강, 이용자의 인식, 이용자의 요구
Public Library, Bibliotherapy, Bibliotherapy Services, Mental Health, User Perception, User Need

*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ksokim@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3년 1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1월 3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349-376,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1.34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통계뿐만 아니라 2012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고¹⁾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6%(알코올과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면 14.4%)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며 성인의 15.6%가 심각하게 자살사고(思考)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신과를 찾는 비율은 15.3%로 선진국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²⁾보다 매우 낮다. 진료 비용에 대한 부담과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서 부적응이나 대인관계 문제, 우울증 등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면서도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정신과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험수위에 이른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신과 치료의 대안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독서치료이다.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 문제 상황을 보는 관점을 개선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돕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독서치료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치료³⁾는 책의 치유적 가치를 이용하여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빚어지는 인간의 마음 상함을 치유하고 발달과업을 적절히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유아·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일반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정보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이용자, 결혼이나 이주로 인해 한국 사회에 편입된 다문화가정의 이용자 등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서와 공간 등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연구자는 지난 2002년부터 10여 년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의 특화된 서비스로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정신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을 관찰하였다.⁴⁾ 현재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는 이용자의 호응⁵⁾을 얻으며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고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1) 보건복지부. 2012. 『보도자료』. [online]. [cited 2013.1.13].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66858&page=1〉.

2) 미국 39.2%(2010년), 호주 34.9%(2009년), 뉴질랜드 38.9%(2006년). 위의 글.

3) 'bibliotherapy'를 '독서치료'로 표현하며 도서관에서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발달적 독서치료'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즉 정신적·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임상적 독서치료(clinical bibliotherapy)' 영역에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발달과업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나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마음 상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발달적 독서치료(developmental bibliotherapy)'를 다룬다.

4) 연구자는 2001년 참여자로서 독서치료를 처음 접하면서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고,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서와 관리자가 있는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독서치료 서비스가 좀 더 많은 공공도서관에 확대되고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즉 독서치료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잠재적 이용자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독서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치료 서비스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독

서치료 서비스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기대 수준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분석하는 형식으로 수행하였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product), 비용(price), 환경과 공간(place), 홍보(promotion), 사서와 이용자(people), 적시성(point of time) 측면에서 이용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⁶⁾

표집방법으로, 모집단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이용자를 접촉하기 어려워 비확률표집을 하였다. 공공도서관 관계자나 이용자를 통해 독서치료 설문조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URL을 배포하여 2주일 동안 웹기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 활동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을 참여 관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 자신뿐만 아니라 참여자 대부분이 책의 치유적 가치를 발견하고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었다. 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였고,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가 단순한 '읽'이 아닌 '삶'을 나누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서비스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다.

- 5) ① “도서관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책은 이제까지 내가 읽던 책과는 달랐다. 처음엔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책을 덮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내가 조금씩 변하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좀 큰 느낌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덜 의식하게 되었다. 많은 위로를 받게 된 강좌였다. 요즘은 만나는 사람에게 독서치료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런 독서치료 강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부산 Y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A.
- ② “독서치료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책이라는 매체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책을 읽고 자기의 표현을 글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치유에 대한 긍정적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것 같다. 12주 동안 책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책 읽기에 급급했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 부산 Y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B.
- ③ “나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수업이 많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필요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수업들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부산 Y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C.
- 6) 연구자는 『눈에 띄는 도서관 마케팅』(이체, 2005)에서 마케팅 6P로 제시된 적절한 상품(product), 적절한 가격(price), 적절한 장소(place), 적절한 홍보(promotion), 적절한 고객(people), 적절한 시기(point of time)를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2. 연구의 설계

2.1 설문지의 개발 및 구성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일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서치료 서비스가 일반 이용자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서비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독서치료에 대한 개념을 비롯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요구,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 문항을 만들고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로부터 문항의 타당성, 오류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문항의 내용과 용어는 공공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인 중학생 이상 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문항수로 조정하였다. 설문지를 완성한 후 공식적인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 4명(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2명)과 성인 2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용어의 난이도를 조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 (1)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 18문항⁷⁾
- (2)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 21문항
- (3)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바라

는 사항에 대한 자유 기술

- (4) 설문 조사 응답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2.2 조사 대상의 선정과 조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의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개인을 일일이 접촉하여 설문응답을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이메일 주소를 먼저 수집하였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나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용자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공식적으로 수집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비확률표집을 실시하여 2012년 7월 한 달 동안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남해, 거제, 진영 지역의 공공도서관 관계자나 지인들을 통하여 설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에 응답할 의사가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였다.

2012년 8월 1일에 설문 대상자⁸⁾의 이메일 주소로 온라인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URL을 배포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일 동안 설문 응답결과를 수집하였다. 처음에

7) 먼저 이 설문지에 사용되는 주된 용어인 '독서치료', '치유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에 대한 정의를 하였다.

8) 다양한 연령층의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잠재적 이용이 예상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중학생 이상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경로로 이메일 주소를 입수하고자 하였다. 7월 한 달 동안 수집한 이메일주소(1,368건)로 2012년 8월 1일에 설문을 배포한 결과 '배달 실패'

수집한 이메일 주소로 설문 URL을 보낸 결과 '배달실패'로 돌아온 메일이 185건이었다. 그 수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1,183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여 648명(회수율 54.8%)이 설문에 응답하

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648)

구분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60	24.7
	여	488	75.3
연령	10대	77	11.9
	20대	172	26.5
	30대	158	24.4
	40대	175	27.0
	50대 이상	66	10.2
학력	중졸이하(중학생포함)	50	7.7
	고졸(고등학생 포함)	61	9.4
	대졸(대학생 포함)	442	68.2
	대학원졸 이상	95	14.7
직업	사무/관리/전문/경영직	293	45.2
	생산/기술/노무직	9	1.4
	판매/서비스/영업직	28	4.3
	자영업	8	1.2
	학생	173	26.7
	주부	95	14.7
	무직/기타	42	6.5
직업 (재구분)	직장인	338	52.1
	학생	173	26.7
	주부	95	14.7
	무직	42	6.5
계		648	100.0

로 돌아온 메일이 185건이었다. 그 이유는 모바일 통신기기의 발달로 사람들이 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많고, 특히 이메일을 자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이메일주소가 휴면상태이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메일주소 당사자의 휴대폰을 알고 있는 경우 설문에 응답해 줄 것과 공공도서관 잠재적 이용자인 제 3자에게 메일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에 응답할 의사가 있으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응답자나 울산 중부도서관 사서가 회수한 이용자의 설문지는 연구자가 일괄입력하기도 하였다.

3. 연구의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설문 결과를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설문지의 폐쇄형 문항의 응답 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복수응답분석, 기술 통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각 응답 항목에 1에서 5까지(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의 값을 지정하여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계 분석의 유의 수준은 p값이 .05 미만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1 독서치료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1) 책을 읽는 주된 목적

‘책을 읽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책을 읽는 주된 목적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31.2%),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22.5%), 즐거움을 얻기 위해(21.5%), 교

양을 넓히기 위해(15.6%),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5.2%) 순으로 나타났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독서를 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개인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부터 ‘치유(healing)’ 관련 도서가 출판계에 쏟아져 나오는 것과는 관련이 깊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와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책을 읽는 응답자의 경우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요인

‘현재 귀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39.7%), 가족 간의 불화 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16.0%), 경제적인 어려움(9.6%), 공부와 성적 스트레스(8.3%), 자신이나 가족의

<표 2> 책을 읽는 주된 목적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202	31.2
즐거움을 얻기 위해	139	21.5
교양을 넓히기 위해	101	15.6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146	22.5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34	5.2
시간을 보내기 위해	11	1.7
기타	15	2.3
합계	648	100.0

〈표 3〉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요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공부와 성적 스트레스	54	8.3
따돌림 또는 학교폭력	1	.2
미취업 또는 실직	16	2.5
가족의 죽음	13	2.0
이혼(부모, 배우자) 또는 애인과의 이별	11	1.7
가족 간의 불화 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104	16.0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49	7.6
경제적인 어려움	62	9.6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	257	39.7
기타	81	12.5
합계	648	100.0

질병(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글로벌 위기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과 극심한 경쟁과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응답결과를 참고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상황'을 설정하는 데 참고

로 할 수 있을 것이다.

(3)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의 대처방법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의 대처방법은,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다(28.2%), 잠을 잔다(17.7%), 내

〈표 4〉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의 대처방법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잠을 잔다	115	17.7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	21	3.2
게임, 인터넷 등을 한다	28	4.3
고통을 잊기 위해 바쁘게 지낸다	48	7.4
연락을 끊고 집에만 있다	20	3.1
남에게 시비를 걸거나 화풀이한다	4	.6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끄끙 앓는다	97	15.0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다	183	28.2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5	.8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	77	11.9
기타	50	7.7
합계	648	100.0

색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는다(15.0%),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11.9%), 고통을 잊기 위해 바쁘게 지낸다(7.4%) 순으로 나타났다. 30%에 가까운 응답자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발설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동 중 '치유적 말하기'에 해당하므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잠재적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도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나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의 응답률은 0.8%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4) 책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좋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책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2
그렇지 않다	7	1.1
보통이다	66	10.2
그렇다	322	49.7
매우 그렇다	252	38.9
합계	648	100.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좋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렇다(49.7%), 매우 그렇다(38.9%), 보통이다(10.2%), 그렇지 않다(1.1%), 전혀 그렇지 않다(0.2%)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88.6%)가 좋은 책이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으로써 책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책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직업별 기술통계

직업(재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직장인	338	4.31	.702
학생	173	4.06	.700
주부	95	4.45	.597
무직	42	4.26	.627
합계	648	4.26	.693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은 4.26, 표준편차는 0.693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직업을 재구분⁹⁾하여 직업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학생 응답자의 평균(4.0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주부 응답자의 평균이 가장 높고 표준편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직장인과 학생, 학생과 주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독서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 독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상황에 맞는 치유서가 마음의 고통 완화나 치유에 미치는 영향

'마음이 아플 때 그 상황에 맞는 책(치유서)

9) 사무/관리/전문/경영직, 생산/기술/노무직, 판매/서비스/영업직, 자영업을 '직장인'으로 통합하고, 네 개의 직업군, 즉 직장인, 학생, 주부, 무직으로 재구분하였다.

을 읽고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고통이 덜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상황에 맞는 치유서가 마음의 고통 완화나 치유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2
그렇지 않다	9	1.4
보통이다	62	9.6
그렇다	382	59.0
매우 그렇다	194	29.9
합계	648	100.0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황에 맞는 치유서가 마음의 고통 완화나 치유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59.0%), 매우 그렇다(29.9%), 보통이다(9.6%), 그렇지 않다(1.4%), 전혀 그렇지 않다(0.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88.9%)가 상황에 맞는 치유서의 치유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므로 공공도서관은 상황에 맞는 치유서 목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표 8> 상황에 맞는 치유서가 마음의 고통 완화나 치유에 미치는 영향의 직업별 기술통계

직업(재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직장인	338	4.20	.668
학생	173	4.03	.681
주부	95	4.32	.588
무직	42	4.17	.581
합계	648	4.17	.660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은 4.17, 표준편차는 0.660이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직업을 재구분하여 직업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주부 응답자의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 학생 응답자의 평균은 가장 낮고 표준편차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주로 주부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독서치료 경험의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독서치료 인지 여부

‘독서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독서치료 인지 여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	521	80.4
아니오	127	19.6
합계	648	100.0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예(80.4%), 아니오(19.6%)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독서치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독서치료 인지 경로(복수 응답)

‘독서치료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복수응답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인지 경로’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기준 비율로 볼 때, 주변 사람(24.7%),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22.6%), 도서관(21.8%), 인터넷(14.0%), 기타(8.4%)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을 통해 독서치료를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입소문’을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10〉 독서치료 인지 경로

구분	빈도	응답자수 기준 비율	응답 기준 비율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180	35.2%	22.6%
인터넷	111	21.7%	14.0%
행사 안내문, 현수막	44	8.6%	5.5%
주변 사람	196	38.3%	24.7%
도서관	173	33.8%	21.8%
서점	24	4.7%	3.0%
기타	67	13.1%	8.4%
합계	795	155.4%	100.0%

(8)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 대한 응답결과는, 자료 열람 및 대출(71.8%), 열람실 이용(개인 공부)(13.1%),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5.1%), 여가 시간 활용(4.0%), 도서관 봉사(1.9%)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자료를 열람하고 대출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개인 공부를 위해 열람실을 이용하거나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나

타났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치료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독서치료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9)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인지 내용
 (복수응답)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중 귀하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복수 응답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인지 내용’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기준비율로 볼 때, 독서치료 프로그램(35.5%), 특정 상황에 맞는 도서 추천(19.5%), 독서치료 치유서 따로 비치(19.2%), 상황별 독

〈표 11〉 공공도서관 이용의 주된 목적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자료 열람 및 대출	465	71.8
시청각자료 활용(영화 감상, 어학 학습 등)	4	.6
정보 검색 및 PC 활용	10	1.5
열람실 이용(개인 공부)	85	13.1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	33	5.1
도서관 봉사	12	1.9
여가 시간 활용	26	4.0
기타	13	2.0
합계	648	100.0

〈표 12〉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인지 내용

구분	빈도	응답자수 기준 비율	응답 기준 비율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발간	181	35.1%	18.1%
독서치료 치유서 따로 비치	192	37.3%	19.2%
독서치료 프로그램	354	68.7%	35.5%
독서치료 치유서 전시회	38	7.4%	3.8%
찾아가는 독서치료 서비스	39	7.6%	3.9%
특정 상황에 맞는 도서 추천	194	37.7%	19.5%
합계	998	193.8%	100.0%

서치료목록 발간(18.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치료 서비스 중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

'9번 문항의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중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¹⁰⁾의 응답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발간	85	13.1
독서치료 치유서 따로 비치	37	5.7
독서치료 프로그램	296	45.7
독서치료 치유서 전시회	4	.6
찾아가는 독서치료 서비스	71	11.0
특정 상황에 맞는 도서 추천	155	23.9
합계	648	100.0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응답결과는 독서치료 프로그램(45.7%), 특정 상황에 맞는 도서 추천(23.9%),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발간(13.1%), 찾아가는 독서치료 서비스(11.0%), 독서치료 치유서 따로 비치(5.7%)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응답자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한 독서치료 서비스로 생각하며 '특정 상황에 맞는 도서 추천'을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유무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유무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	197	30.4
아니오	451	69.6
합계	648	100.0

10) 독서치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 역시 독서치료 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이므로 설문 조사를 시작하면서 독서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 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대한 응답결과는, 30.4%가 참여한 경험이 있고, 69.6%가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

독서치료 참여자 중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자 196명의 응답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5
그렇지 않다	1	.5
보통이다	31	15.8
그렇다	91	46.4
매우 그렇다	72	36.8
합계	196	100.0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렇다(46.4%), 매우 그렇다(36.8%), 보통이다(15.8%), 그렇지 않다(0.5%), 전혀 그렇지 않다(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독

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응답자의 83.2%가 긍정적인 변화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직업을 재구분하여 직업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통계상으로 직업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주부 응답자의 평균이 가장 높고 표준편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 내용(복수 응답)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의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자 196명의 복수응답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응답 기준 비율로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 회복(25.0%) 긍정적인 생각과 폭넓은 현실 수용(20.4%), 타인과의 관계 개선(12.1%), 고통의 완화 또는 아픈 마음의 치유(12.0%), 일상의 즐거움과 삶에 대한 의지 증가(9.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적 독서치료가 사회적응을 돕고 건전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의 직업별 기술통계

직업(재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직장인	93	4.15	.807
학생	41	4.12	.781
주부	51	4.29	.610
무직	11	4.18	.751
합계	196	4.18	.749

〈표 17〉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 내용

구분	빈도	응답자수 기준 비율	응답 기준 비율
고통의 완화 또는 아픈 마음의 치유	69	36.3%	12.0%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 회복	144	75.8%	25.0%
타인과의 관계 개선	70	36.8%	12.1%
긍정적인 생각과 폭넓은 현실 수용	118	62.1%	20.4%
일상의 즐거움과 삶에 대한 의지 증가	52	27.4%	9.0%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증가	34	17.9%	5.9%
남에 대한 배려와 봉사 마인드 증가	40	21.1%	6.9%
독서습관 형성	46	24.2%	8.0%
기타	4	2.1%	.7%
합계	577	303.7%	100.0%

(14)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불만족 요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자 73명의 응답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불만족 요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서	12	16.4
책읽기를 게을리해서	11	15.1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서	5	6.8
개인 사정을 드러내지 못해서	14	19.2
참여자 간의 신뢰감이 적어서	11	15.1
혼란과 고통으로 중도 포기해서	2	2.7
책이 어려워서	3	4.1
진행자가 미숙해서	1	1.4
기타	14	19.2
합계	73	100.0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후 불만족 요인’으로 개인 사정을 드러내지 못해서(19.2%), 열심히 참여하지 못해

서(16.4%), 책읽기를 게을리해서(15.1%), 참여자 간의 신뢰감이 적어서(15.1%),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서(6.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요인으로 ‘인간의 심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계속 연결되지 않아서’, ‘참여자 수가 많아 개인의 깊이는 나뉘어 어려움’, ‘치유적 글쓰기를 다 하지 못한 점’이 언급되었다. 대부분의 불만족 요인이 자신의 개인 사정이나 속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과 책을 제대로 읽어오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듯하다.

(15) 독서치료 프로그램 불참 요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자 450명¹¹⁾의 응답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그램 불참 요인에 대한 전체 응답자 450명의 응답결과는 독서치료에 대해 알지 못해서(23.8%), 시간이 맞지 않아서(2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몰라서(18.7%), 자신에게 아

11) 〈표 14〉에서 451명이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1명의 무응답으로 이 문항의 전체 응답자는 450명이다.

〈표 19〉 독서치료 프로그램 불참 요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독서치료에 대해 알지 못해서	107	23.8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몰라서	84	18.7
시간이 맞지 않아서	94	20.9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멀어서	23	5.1
개인사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33	7.3
책을 읽어낼 자신이 없어서	8	1.8
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18	4.0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58	12.9
기타	25	5.5
합계	450	100.0

무 문제가 없어서(12.9%), 개인사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7.3%)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치료에 대해 알지 못해서'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몰라서'라고 답한 응답자(42.5%)는 잠재적인 독서치료 서비스 대상이므로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0.9%에 달하므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확대 또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또는 권유 의사
 '앞으로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참여하기를 권할 생각이 있습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또는 권유 의사'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렇다(43.1%), 보통이다(28.5%), 매우 그렇다(23.9%), 그렇지 않다(2.8%), 전혀 그렇지 않다(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응답자의 67%(그렇다(43.1%), 매우 그렇다(23.9%))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권유하고

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또는 권유 의사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	1.7
그렇지 않다	18	2.8
보통이다	185	28.5
그렇다	279	43.1
매우 그렇다	155	23.9
합계	648	100.0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은 3.85로 책이 주는 긍정적인 가치와 효과에 비해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타인에게 권유하고자 하는 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875로 다른 변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직업을 재구분하여 직업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주부 응답자의 평균이 월등히 높으며 표준편차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주부는 다른 직업군과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 또는 권유 의사의 직업별 기술통계

직업(재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직장인	338	3.87	.865
학생	173	3.63	.903
주부	95	4.24	.710
무직	42	3.67	.874
합계	648	3.85	.875

고등학생(9.9%), 중년남성(7.8%), 대학생(7.7%) 순으로 나타났고 유아(2.8%)가 가장 적었다. 많은 응답자가 유아를 제외한 소년원생(7.1%)이나 교도소 수용자(6.7%), 말기환자(5.0%), 다문화가정의 여성(6.4%)이나 자녀(6.6%) 등 독서소외계층에게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대상 (복수 응답)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복수응답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대상’에 대한 응답결과를 응답기준 비율로 볼 때, 주부(10.5%), 중학생(10.0%),

(18) 공공도서관 독서치료서비스의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대한 기여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전체 응답자 648명의 응답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서비스의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대한 기여’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렇다(57.4%), 때

〈표 22〉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대상

응답	빈도	응답자수 기준 비율	응답 기준 비율
유아	117	18.1%	2.8%
초등학생	281	43.4%	6.8%
중학생	415	64.0%	10.0%
고등학생	409	63.1%	9.9%
대학생	318	49.1%	7.7%
미혼남녀	235	36.3%	5.7%
주부	435	67.1%	10.5%
중년 남성	323	49.8%	7.8%
노인	249	38.4%	6.0%
말기환자	207	31.9%	5.0%
다문화가정 자녀	275	42.4%	6.6%
다문화가정 여성	264	40.7%	6.4%
소년원생	294	45.4%	7.1%
교도소 수용자	280	43.2%	6.7%
기타	47	7.3%	1.1%
합계	4,149	640.2%	100.0%

〈표 23〉 공공도서관 독서치료서비스의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대한 기여

응답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5
그렇지 않다	14	2.2
보통이다	116	17.9
그렇다	372	57.4
매우 그렇다	143	22.1
합계	648	100.0

〈표 24〉 ‘공공도서관 독서치료서비스의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대한 기여’의 직업별 기술통계

직업(재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직장인	338	4.02	.710
학생	173	3.86	.760
주부	95	4.16	.641
무직	42	3.86	.814
합계	648	3.98	.727

우 그렇다(22.1%), 보통이다(17.9%), 그렇지 않다(2.2%), 전혀 그렇지 않다(0.5%)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는 79.5%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은 3.98이고, 표준편차는 0.727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직업을 재구분하여 직업별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주부 응답자의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후검증 결과 학생과 주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서비스, 비용, 환경과 공간, 홍보, 사서와 이용자, 적시성 측면의 문항

에 대한 응답내용의 기술통계는 〈표 25〉와 같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관련 21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4.16, 표준편차는 0.761로 나타났으며, 각 설문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기 위해 가시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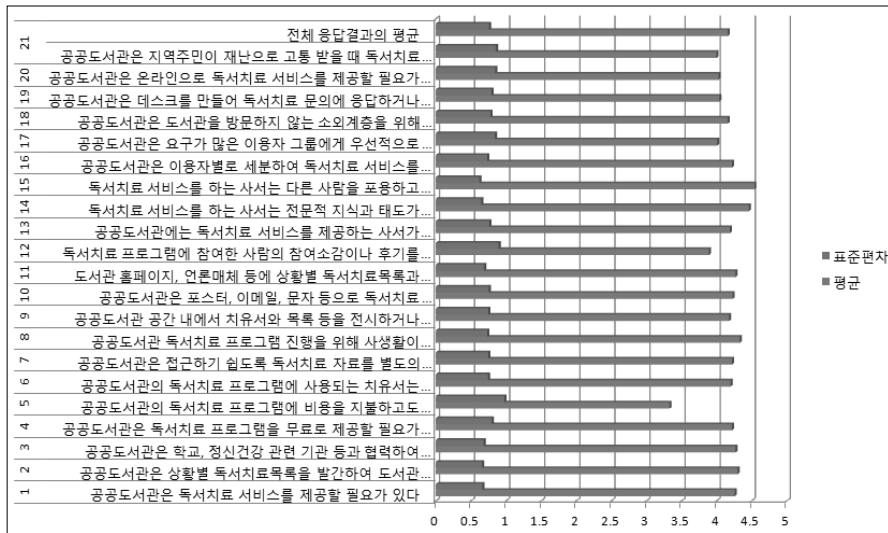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치료 서비스를 하는 사서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른 변수에 비해 평균이 높으며 표준편차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고도 참여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으며 표준편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보면,

〈표 25〉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

문항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6	.665
2	공공도서관은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발간하여 도서관 내부와 외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30	.660
3	공공도서관은 학교,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7	.682
4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2	.796
5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고도 참여할 생각이 있다	648	1	5	3.33	.978
6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치유서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48	1	5	4.20	.744
7	공공도서관은 접근하기 쉽도록 독서치료 자료를 별도의 공간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2	.749
8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648	2	5	4.33	.732
9	공공도서관 공간 내에서 치유서와 목록 등을 전시하거나 치유 관련 영화를 상영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18	.747
10	공공도서관은 포스터, 이메일, 문자 등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3	.754
11	도서관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상황별 독서치료목록과 신간 치유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7	.691
12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참여소감이나 후기를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648	1	5	3.89	.898
13	공공도서관에는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가 필요하다	648	1	5	4.19	.764
14	독서치료 서비스를 하는 사서는 전문적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648	2	5	4.46	.647
15	독서치료 서비스를 하는 사서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648	2	5	4.54	.620
16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별로 세분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22	.732
17	공공도서관은 요구가 많은 이용자 그룹에게 우선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01	.843
18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소외계층을 위해 독서치료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16	.778
19	공공도서관은 데스크를 만들어 독서치료 문의에 응답하거나 치유서를 추천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04	.795
20	공공도서관은 온라인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03	.846
21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재난으로 고통 받을 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648	1	5	4.00	.859
	전체 응답결과의 평균				4.16	.761



〈그림 1〉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관련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90%(그렇다 52.5%, 매우 그렇다 37.5%)가, ‘공공도서관은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발간하여 도서관 내부와 외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90.9%(그렇다 51.1%, 매우 그렇다 39.8%)가, ‘공공도서관은 학교,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9.2%(그렇다 50.3%, 매우 그렇다 38.9%)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서치료 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4.7%(그렇다 43.5%, 매우 그렇다 41.2%)가,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비용을 지불하고도 참여할 생각이 있다’에 응답자의 40.9%(그렇다 28.4%, 매우 그렇다 12.5%)가,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치유서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에 응답자의 85.2%

(그렇다 48%, 매우 그렇다 37.2%)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응답자들은 공공도서관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기를 선호하지만 비용을 지불하고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이용자가 응답자의 40.9%를 차지함으로써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서치료 서비스의 환경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접근하기 쉽도록 독서치료 자료를 별도의 공간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7.7%(그렇다 50.2%, 매우 그렇다 37.5%)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에 응답자의 88%(그렇다 41.5%, 매우 그렇다 46.5%)가, ‘공공도서관 공간 내에서 치유서와 목록 등을 전시하거나 치유 관련 영화를 상영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4.9%(그렇다 48.9%, 매우 그렇다 36%)가 필요성을 느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독서치료 서비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포스터, 이메일, 문자 등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6.3%(그렇다 46.9%, 매우 그렇다 39.4%)가, '도서관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상황별 독서치료목록과 신간 치유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9.5%(그렇다 50.8%, 매우 그렇다 38.7%)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참여소감이나 후기를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71.9%(그렇다 46.9%, 매우 그렇다 25%)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소감이나 후기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원할 경우 익명으로 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독서치료 서비스 제공자, 즉 사서나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에는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가 필요하다'에 응답자의 84.5%(그렇다 46.8%, 매우 그렇다 37.7%)가, '독서치료 서비스를 하는 사서는 전문적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다'에 응답자의 92.1%(그렇다 37.5%, 매우 그렇다 54.6%)가, '독서치료 서비스를 하는 사서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에 응답자의 94.5%(그렇다 34%, 매우 그렇다 60.5%)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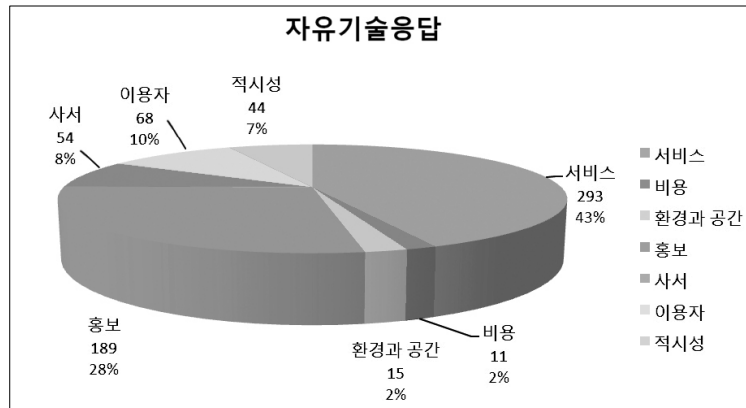
이어서 독서치료 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별로 세

분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6.3%(그렇다 48.5%, 매우 그렇다 37.8%)가, '공공도서관은 요구가 많은 이용자 그룹에게 우선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78.5%(그렇다 49.8%, 매우 그렇다 28.7%)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소외계층을 위해 독서치료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83.6%(그렇다 48.3%, 매우 그렇다 35.3%)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독서치료 서비스의 즉시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데스크를 만들어 독서치료 문에 응답하거나 치유서를 추천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79%(그렇다 50%, 매우 그렇다 29%)가, '공공도서관은 온라인으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77.2%(그렇다 46.3%, 매우 그렇다 30.9%)가,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재난으로 고통 받을 때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76.4%(그렇다 46.9%, 매우 그렇다 29.5%)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구조화된 설문 내용 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와 그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를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그룹별로 비교하면 <그림 2>와 같다. 설문 응답자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홍보'에 대한 것으로 전체의 28%에 달하는 189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자유기술에 나타난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 비교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기술한 내용을 서비스, 비용, 환경과 공간, 홍보, 사서, 이용자, 적시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표 2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자유 기술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응답자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홍보’에 대한 것으로 ‘많은 홍보 필요’가 179건(26.6%)이었다. 그 다음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 대상 확대 필요’가 50건,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제공 필요’는 35건, ‘다양한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가 17건, ‘전문 인력 배치 필요’는 17건, ‘독서치료에 대한 호감 또는 참여의지 있음’이 15건, ‘지속적인 서비스 필요’가 14건,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필요’가 13건, ‘직장인을 위한 야간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는 13건, ‘치유서 다양성 중요’가 12건, ‘친근한 안내로 접근성 개선 또는 증가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13건, ‘프라이버시 보호’가 12건, ‘체계적 프로그램 필요’가 10

건, ‘전문사서 필요’가 10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치유서,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독서치료 프로그램, 서비스의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소수 의견으로 ‘도시뿐만 아니라 최소 군 단위까지 필요’(1건), ‘작은 도서관에도 독서치료 정보 제공 필요’(1건), ‘학생들은 학교에서 월 1회 독서치료 받도록’(1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서비스 필요’(1건)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셋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과 공간에 대해서는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확보’(8건), ‘도서관 접근성 중요’(2건), ‘독립 공간 필요’(2건), ‘동사무소, 복지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접할 기회 확대’(1건), ‘울주군에도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

<표 26> 자유기술에 나타난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

구분	세구분	응답수	소계	총계
서비스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 제공 필요	35	293 (43%)	674 (100%)
	활성화 필요	21		
	다양한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	17		
	독서치료에 대한 호감 또는 참여의지 있음	15		
	지속적인 서비스 필요	14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필요	13		
	치유서 다양성 중요	12		
	친근한 안내로 접근성 개선 또는 증가할 수 있는 방법 모색	12		
	프라이버시 보호	12		
	체계적 프로그램 필요	10		
	내실 있는 서비스 필요	9		
	찾아가는 서비스 필요	9		
	학교 관련 기관과의 연계	8		
	치유서 비치 필요	7		
	후속(심화)프로그램 필요	7		
	대상에 따른 세분화 프로그램 필요	6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 필요	6		
	'치료'보다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	6		
	독서치료 관련 강좌, 세미나 유치 필요	5		
	독서흥미 유발 프로그램 우선 개설	5		
	소규모 프로그램 필요	5		
	양질의 서비스 필요	5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 필요	5		
	다양한 연령대 프로그램 필요	4		
	맞춤형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	4		
	독서치료 효과 높음	3		
	적극적인 서비스 필요	3		
	전문사서의 치유서 추천 서비스 필요	3		
	정신건강 관련기관과의 협력	3		
	제도화로 독서치료 서비스 정착	3		
	도서관 특화서비스로 전문화	2		
	수요 많으나 공급 부족	2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	2		
	개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추후 정보 공유	1		
	공공도서관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응용분야 확대	1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치유서를 녹음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법규화 필요	1		
	다른 치료 프로그램과 병행	1		
	단기간 집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	1		
	도시뿐만 아니라 최소 군 단위까지 필요	1		
	독서의 근본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함	1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매년 보완 필요	1			
신속한 치유서 비치	1			
오직 주민들의 행복한 자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1			
작은 도서관에도 독서치료 정보 제공 필요	1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연결	1			
처음의 목적을 잊지 말 것	1			
청소년, 노인을 위한 치유서 구입 요망	1			

구분	세구분	응답수	소계	총계	
	치유서 내용 요약 서비스 제공	1			
	타도서관에도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배포	1			
	프로그램 시간 연장	1			
	프로그램 전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1			
	학생들은 학교에서 월 1회 독서치료 받도록	1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서비스 필요	1			
비용	무료 제공 필요	7	11 (2%)		
	최소한의 비용 부담이 효과적	4			
환경과 공간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확보	8	15 (2%)		
	교통, 도서관 접근성 중요	2			
	독립 공간 필요	2			
	동사무소, 복지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 접할 기회 확대	1			
	울주군에도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설 필요	1			
전문부서의 설치	1				
홍보	많은 홍보 필요	179	189 (28%)		
	후기 활용이 홍보에 도움	3			
	정보공유 필요	2			
	정신적인 질병의 치료차원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홍보	2			
	관공서와 주민자치센터, 관할 병원의 협의 아래 홍보하면 효과적	1			
	학교, 공공기관, 소외계층에 홍보	1			
홍보 시 사전 동의	1				
사람	사서	전문 인력 배치 필요	17	54 (8%)	
		전문사서 필요	10		
		진행자의 자질 중요	9		
		독서치료 강사 및 양성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 필요	3		
		담당사서의 잦은 변경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결여와 신뢰감 저하	2		
		담당자들의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필요	2		
		전문성 필요	2		
		전문적 상담 능력 소지자 진행 필요	2		
		진정성 있는 서비스 마인드 필요	2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필요	1		
		사서의 전문교육 이수 필요	1		
		상담 관련 자격 필요	1		
		전문가가 아닌 경우 지나치게 전문적인 활동을 하지 않길	1		
전문적 교육받은 치료자 진행 필요	1				
이용자		독서치료 프로그램 대상 확대 필요	50	68 (10%)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필요	6		
		주부,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	2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필요	2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필요	1		
		독서모임 참여자부터 실시	1		
		사춘기 청소년의 정서안정을 위한 독서치료 의무화 필요	1		
		영유아, 청소년 위주 운영으로 독서습관 형성	1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부터 실시	1		
		장애인 대상 서비스 필요	1		
		쾌락, 유희에 빠진 자, 부랑자, 노숙인 등을 위한 서비스 필요	1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1				

구분	세구분	응답수	소계	총계
적시성	다양한 시간대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	17	44 (7%)	
	직장인을 위한 야간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	13		
	온라인 서비스 필요	6		
	상설 독서치료 프로그램 필요	3		
	주말프로그램 필요	3		
	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 프로그램 필요	2		

설 필요'(1건), '전문부서의 설치'(1건)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 필요'(179건), '후기 활용이 홍보에 도움'(3건), '정보공유 필요'(2건), '정신적인 질병의 치료차원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홍보'(2건), '관공서와 주민자치센터, 관할 병원의 협의 아래 홍보하면 효과적'(1건), '학교, 공공기관, 소외계층에 홍보'(1건), '홍보 시 사전 동의'(1건)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여섯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사서나 진행자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담당사서의 잦은 변경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결여와 신뢰감 저하'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독서치료 서비스의 대상에 대해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대상 확대 필요'(50건)가 가장 많았고, 소외계층이나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나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 같은 특수한 대상에까지 독서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곱째,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적시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간대 프로그램, 특히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이나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학생들을 위한 방학 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온라인 서비스에 대

한 요구도 있었다.

4.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비용, 환경과 공간, 홍보, 사서와 이용자, 적시성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서비스

첫째, 독서치료 서비스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의 특화서비스로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독서치료 서비스의 필요성, 이용자의 요구와 반응, 독서치료 서비스가 도서관의 존재 가치와 도서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경영진을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진의 긍정적인 인식과 정책적·환경적 기반 위에 서비스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용행태, 수요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발간하여 도서관 내·외부에 제공하여야 할 것

이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도 한국도서관협회의 독서목록¹²⁾과 다른 기관의 상황별 독서치료 목록¹³⁾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특정 상황에 맞는 치유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2 비용

첫째, 공공도서관은 무료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관이므로 경제적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이용자도 독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치유서는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본을 비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영리기관의 비용 절감 차원과는 다르게 '도서관 브랜드'로 독서치료를 부각시키고, 독서치료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인간소외, 자기정체성 혼란 등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성장을 지원하는, '영

혼을 치유하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여야 할 것이다.

4.3 환경과 공간

첫째,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이용자의 왕래가 많은 도서관 내 공간에 독서치료 자료를 따로 비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독서치료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 공간 내에서 독서치료 특강, 치유서 전시, 치유 관련 영화 상영 등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4 홍보

첫째, 도서관 내·외부의 게시판, 도서관 홈페이지, 언론매체, 포스터,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다각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 후기나 입소문을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관 기반의 사서가 주도하는 책정연¹⁴⁾ 홈페이지의 독서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

12) 한국도서관협회. 2004. 『상황별 독서목록: 성인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2007.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 증보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3) 박현영, 박영숙, 송미정, 성혜경, 박금미, 김미선. 2010.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 상황별 목록』. 창원: 공공도서관협의회.
14) 책읽기를 통한 정신건강 연구회(<http://www.readingtoheal.or.kr>)의 줄임말. 2000년 초부터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를 중심으로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이란 이름의 치유서 연구모임으로 출발하였다. 2011

하고 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4.5 사서와 이용자

첫째, 독서치료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진행자인 사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독서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서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태도, 훌륭한 자질을 가진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자를 확보하고 공공도서관들이 인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독서치료 서비스 대상을 유아, 청소년, 미혼남녀, 주부, 중년남성, 노년, 다문화가정, 학교부적응아, 장애아를 둔 부모, 교정교육기관생, 말기 환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 대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 그룹 이용자 대상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일상의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므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왕따 피해 학생',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 '중년 남성', '장애아를 둔 부모',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사람' 등으로 요구가 많거나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그룹을 우선 대상자로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외계층에게도 도서관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6 적시성

첫째, 공공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데스크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 맞는 치유서 정보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온라인상의 데스크를 만들어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고 일상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치유서 정보를 제공하고,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또는 주말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으로 찾아가는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독서치료에 대한 인식과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비용, 환경과 공간, 홍보, 사서와 이용자, 적시성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응답자의 80.4%가 독서치료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된 인지 경로는, '주변 사람'(24.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9%가 '상

년에 '책읽기를 통한 정신건강연구회'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도서관 기반의 사서가 주도하는 독서치료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책정연의 활동과 관련 자료는 책정연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황에 맞는 책(치유서)을 읽고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한 주된 요인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39.7%)뿐만 아니라 마음 아픔의 원인을 고려하여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만들고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상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의 마음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의 주된 대처방법인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다'(28.2%)와 '도움이 되는 책을 읽는다'(11.9%)에 응답한 이용자군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치유적 책읽기, 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30.4%로 그 중 83.2%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 회복'(25.0%)으로 나타났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만족하지 못한 요인의 대부분은 개인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으며 '참여자 간의 신뢰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셋째, 응답자의 90%가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자의 79.5%가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가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은 치유서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상황별 독서치료목록을 발간하여 도서관 내·외부에 배포하고, 체계적인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응답자의 84.7%가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는 한편 '비용을 지불하고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40.9%에 달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용의 유무에 상관없이 특히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자료의 별치,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적인 공간 확보, 치유서·목록 전시나 관련 영화 상영, 특강 등을 통하여 독서치료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한 환경과 공간을 도서관 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거부감이 없는 친근한 언어로 독서치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응답자의 주된 독서치료 인지 경로인 '주변 사람'의 입소문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여소감이나 후기를 홍보에 활용할 때에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공공도서관에서는 서비스, 특히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포용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진행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용자의 연령대와 그룹별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공공도서관은 이용자가 필요로 할 때

독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데스크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상황에 맞는 치유서 추천, 독서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독서치료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나 사회봉사단체의 물적 지원과는 별도로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으로 노약자나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독서치료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의 요구 외에 사서와 경영진의 마인드가 중요하므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 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독서치료에 관심 있는 사서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김수경. 2010.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독서치료의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241-268.
- [2] 김정근, 김경숙, 김은엽. 2009. 『독서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파주: 한울.
- [3] 김정근, 송영임. 2003.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19-41.
- [4] 보건복지부. 2012. 『보도자료』. [online]. [cited 2013.1.13].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66858&page=1>.
- [5] 시스, 주디스 A. 2005. 『눈에 띄는 도서관 마케팅』. 이우정, 박수희, 김태훈 옮김. 서울: 이체.
- [6] 이제환. 2009. 한국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5-29.
- [7] 한윤옥. 2003.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5-26.
- [8] Brown, Eleanor Frances. 1975. *Bibliotherapy and Its Widening Applications*. Metuchen: Scarecrow Press.
- [9] Siess, Judith A. 2003. *Visible Librarian: Asserting Your Value with Marketing and Advocacy*.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10] Stanley, Jacqueline. 2002. *Reading to Heal: How to Use Bibliotherapy to Improve Your Life*.

Boston: Vega.

[11] Walters, Suzanne. 2004. *Library Marketing That Works!*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oo-Kyoung. 2010. "The task of bibliotherapy for the expansion of library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241-268.
- [2] Kim, Jung-Gun, Kim, Kyung-Sook, & Kim, Eun-Yeop. 2009. *Experience-Oriented Bibliotherapy*. Paju: Hanul.
- [3] Kim, Jung-Gun, & Song, Young-Im. 2003. "Community mental health issues and bibliotherap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1): 19-41.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Press Kit』. [online]. [cited 2013.1.13].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66858&page=1>.
- [5] Siess, Judith A. 2005. *Visible Librarian*. Translated by Lee, Woo-Jeong, Park, Soo-Hee, Kim, Tae-Hoon. Seoul: IChae.
- [6] Lee, Jae-Whoan. 2009. "Readers' advisory and bibliotherapy in Korean library commun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5-29.
- [7] Han, Yoon-Ok. 2003. "A Study of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bibliotherap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1): 5-26.